

Yeosu Web Contents

2024년 04월 19일 05시 39분



목차

목차	2
여수한뉴스 - 전체	3
권오봉 여수시장, “일상회복지원금, 지금이 지금 적기”	3

권오봉 여수시장, “일상회복지원금, 지금이 지금 적기”

2022.01.05 조회수 484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담당자 최영란 연락처 061-659-3027

“9시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극심해진 지금이 지금 적기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5일 오전 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일상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일상회복 지원금을 1월 20일 전후에 신속히 지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과 함께 시 차원에서도 지원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몇 차례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들께서 세 차례의 긴급이동명령, 대규모 선제적 검사와 백신 접종, 3차 긴급이동명령 등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서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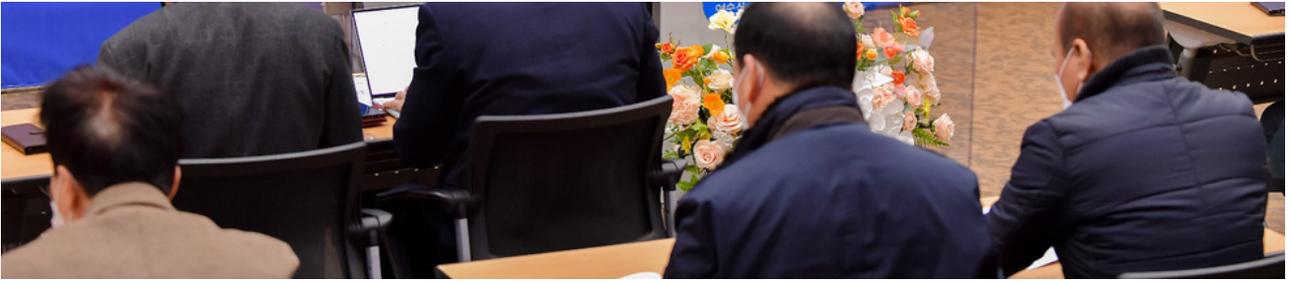
시민단체와 시의회에서 지난해 지급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었는데 이제 와서 지급하는게 선거를 염두해두고 있는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확진자가 7천명 대에 달해 12월 18일부터 9시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극심해진 지금이 지금 적기다”면서, “선거에 이용하려한다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나 시의회에서 지급을 주장한 지난해 하반기 소비지표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2020년 대비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10% 내외로 증가했고, 방문 관광객 수도 8월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해 평균 12.7% 증가하며 회복세에 있었다”면서 “더구나 정부에서 9월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경기활성화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시가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수시는 전 시민 1인당 2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28만 2천명, 약 569억 원 규모다.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신속히 준비해 오는 20일 전후에 지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http://www.yeosu.go.kr>)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1-1. 권오봉 여수시장, “여수 미래 100년 시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jpg (233 hit/ 501.2 KB) ↓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권오봉 여수시장, “여수 미래 100년 시민과 함께...

다음글

여수시, 2021년 사회조사 결과 공표 “시민의 삶에...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Yeosu Web Contents

